Ⅲ. 2009학년도 1차 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③	2. ⑤	3. ①	4. ①	5. ④
6. ④	7. ①	8. ③	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④	20. ②
21. ④	22. ③	23. ①	24. ②	25. ③
26. ⑤	27. ②	28. ③	29. ②	30. ①
31. ⑤	32. ②	33. ④	34. ②	35. ⑤
36. ⑤	37. ⑤	38. ③	39. ③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④	45. ①
46. ①	47. ⑤	48. ③	49. ①	50. ②

1. 맞는 문장 정답 ③

③ 제외한 나머지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이나' 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①을 보자. '-이나' 앞뒤의 내용이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사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 '상실' 을 수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애매해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명확해졌다.

우리말 조사 '-에' 와 '-에게' 는 그 앞에 오는 명사의 자질에 따라 그 앞의 명사가 '동물성' 의 자질을 띠고 있으면 '-에게' 를 택하고 그런 자질이 없으면 '-에' 를 택하는데, ②는 '동물성' 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를 사용하였다.

④와 ⑤는 '-과' 를 중심으로 두 내용을 연결할 때 두 내용 사이의 문법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띄어쓰기 정답 ⑤

⑤의 '이 같은' 의 '같은' 은 형용사 '같다' 를 활용한 관형사형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음' 을 의미한다.이는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함을 의미할 때 띄어 쓴다. 따라서 ⑤는 띄어쓰기가 올바른 경우이다.

①, ② '3년 만에' 의 '만' 과 '출범한 지도' 의 '지' 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므로 의존명사이고,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③ '세 가지' 의 '가지' 는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낱이 헤아리는 말로,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④ '매우 짧은 동안' 을 뜻하는 '한순간' 은 합성어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 정답 ①

사이시옷은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붙여 적는다.

① '웃-' 및 '윗-' 은 명사 '위' 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로 표기해야 하므로 '위층'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마구간' 은 '마구(廐)' 와 '간(間)' 이라는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③ '머리말' 은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기는 하지만 단어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④ '북엇국' 은 '북어(北魚)' 라는 한자어와 '국' 이라는 고유가 결합한 합성어이면서 '국' 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쓴다.

⑤ '예삿일' 은 '예사(例事)' 라는 한자어와 '일' 이라는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4. 어문 규범에 맞는 단어 정답 ①

①의 '내디뎠다' 는 '내디디다' 라는 동사에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인 '-었-' , 그리고 종결 어미 '-다' 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맞다.

② '베다' , '마음을 아프게 하다' 의 뜻을 나타내는 '에다' 는 타동사이므로 '살을 에는' 처럼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로 쓰든가, '에다' 의 피동 형태인 '에이다' 로 쓰려면 '살이 에이는' 과 같은 형태로 써야 한다.

③ 내용상 '만족도를 높게 하는' 의 의미이므로 '높다' 의 사동형인 '높이다' 를 써야 맞는 표현이다. 사동사는 문자의 주체가 남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입맛이나 식욕이 당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 '돋다' 이다. 그리고 이것의 사동사는 '돋우다' 이다. 동사 '돋우다' 는 '위로 끌어올려 높아지게 하다.' , '감정을 자극해 상기하게 하다' , '부추기다' 등의 의미를 가진

.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만 주로 쓰인다.

⑤ '끼다'와 '들다'가 결합할 때는 연결 어미 '-어'가 붙은 '끼어들다'가 맞는 표현이다.

5. 적절한 쓰임 정답 ④

단어 선택의 잘못이 없는 것은 ④이다. 따라서 ④는 고쳐 쓸 필요가 없다.

① '초월(超越)'은 '~을/를' 뒤에서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장 구조상 '초월하다'는 적절하지 않다. '초월'은 '~에서, ~로부터, ~을' 뒤에서 '세속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남'을 의미하는 '초탈'로 고칠 필요가 있다.

② 문맥상 '수출의 장점에 못 미친다'는 의미이므로,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고쳐야 한다.

③ '계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의 의미로 정신세계를 일깨우는 경우에 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새로 만드는'의 의미이므로 '개발'이 적절하다.

⑤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의 뜻이므로 서술어 '낮추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긴장을 조금 풀다'라는 의미의 '늦추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6. 표준 발음 규정 정답 ④

<보기>의 'b' 규정에 의하면 'ㅖ'가 [ㅔ]로도 발음되는 경우는 '예, 례' 이외의 경우이다. 그런데 ④는 '례'에 해당하므로 [실레]로 발음이 되면 안 된다.

① 'f' 규정에 의한 표준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e' 규정에 의한 발음이다.

③ 'c'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 적절한 예다.

⑤ 'd' 규정에 의한 발음에 해당한다.

7. 접속어의 쓰임 정답 ①

접속어의 쓰임은 접속어 앞뒤의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다. ㉠의 앞부분은 전통 사회에서의 정보 전달 경로를 말하며 가부장제에서 정보를 많이 소유할수록 가질 수 있었던 권위를 말하고, ㉠의 뒷부분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더욱 심화된 부모 권위의 약화를 말하였다. 따라서 이 두 내용을 이어주는 ㉠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어인 ②의 '그러나'나 ③의 '그런데'가 적절하다.

㉡은 정보 전달 방법의 변화로 인해 가부장적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이어주므로 ⑤의 '그리하여'가 적절하다.

그리고 ㉢은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된 정보화 사회에서 유연한 정보 소통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이어주므로 인과 관계의 접속어인 ④의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8.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③

제시된 글은, 언어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언어의 특성인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예가 아닌 것은 ③이다. ③에서 외래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①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형식이 다른 경우의 예이다.

②, ⑤ 동음어와 동의어는 모두 소리와 의미가 1:1의 관계가 아닌 경우이다.

④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9. 문장의 구조 정답 ③

예문 (2)의 ㄱ은 ㄷ으로 바꾸어도 비문이 아니지만 (1)의 ㄱ은 ㄷ처럼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되므로 ③처럼 말할 수 없다.

① 예문 (1)의 '만들다'는 '무엇이 되게 하다'의 의미로, 예문 (2)의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② 예문 (1)의 '만들다'는 '누가/무엇이 ~을 ~으로 만들다'의 구조로, 서술어를 제외하면 3자리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문 (2)는 '누가/무엇이 ~을 만들다'의 구조로, 서술어를 제외하면 2자리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④ 예문 (1)의 ㄱ에서 '친구로'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지만 예문 (2)의 ㄱ에서는 '참나무로'를 생략해도 비문이 아니다. 따라서 예문 (1)의 ㄱ에서 '친구로'는 필수성분이지만 예문 (2)의 ㄱ에서는 '참나무로'는 필수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이는 조사 '로'를 조사 '를'로 교체할 때 비문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통해 알 수 있다.

10. 보조용언의 이해 정답 ②

보조용언은 용언 중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용언에 기대어 뜻을 더해 주는 용언을 말한다. 보조용언은 그 품사에 따라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한다. 본용언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보조용언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며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① '보다'는 추측을 의미하는 보조형용사이고, ③의 '간다'는 진행의 의미인 보조동사이며, ④의 '드린다'는 봉사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동사이다. 또 ⑤의 '말았다'는 종결(완료)의 보조동사이다. 그런데 ②의 '먹자'는 '끓여'와 동등한 의미 관계를 갖는 본용언이다.

[11~14] 해제

(가) 김소월, 『금잔디』

이 시는 민요조의 가락에 다시는 볼 수 없는 임과 봄이면 어김없이 돋아나는 금잔디를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사별한 연인에 대한 정한(恨)을 노래한 작품이다. '금잔디'는 임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처럼 무덤가에 퍼지고 있지만, 그러기에 '가신 임' 무덤가에 찾아온 봄이 더더욱 슬프고 한이 되는 심정을 간결하면서도 운치 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나) 김관식, 『석상의 노래』

석상을 소재로 하여 한없는 그리움의 갈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백제 가요 <정읍사>나 신라 시대에 박제상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와 접맥되어 있는 이 시는 그리움으로 인하여 한이 생기고, 그 한이 응결되어 돌이 되었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행이나 연 구분이 없는 산문시로, 구두점까지 철저히 배제하여 독자에게 거침없이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그리움으로 인해 돌이 되었다는 작품의 내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다.

(다) 허수경, 『불취불귀(不醉不歸)』

취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 또는 취하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의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시는, 모든 기억들은 흐릿하지만 마음으로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즉 임은 비록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그를 결코 마음에서 놓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마음을 보내지 않았다, 나 마음을 놓아 보낸 기억만 없다'라고 하고 있다.

1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는 '가신 임 무덤가'에 해마다 돋아나는 금잔디를 보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노을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먼 곳 머언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보다가 돌이 되어 버린 화자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다)는 '마음으로 임을 보내 않았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다른 모든 기억들은 흐릿하게 처리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화자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 (다)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항목은 세 작품 모두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12. 시의 표현과 적용 정답 ⑤

가신 임 무덤가의 금잔디에 봄이 왔음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의 표현은 임의 부재와 대비되어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슬픔과 대조되어 그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는 ⑤의 표현과 유사하다. 비가 갠 뒤의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공간이 임과 이별하며 슬픈 노래 부르는 공간, 즉 이별의 장소가 되고 있어 그 슬픔이 효과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봄의 흥취를 드러내는 한시로, 밑줄 친 부분에서는 낮에 내리는 봄비의 모습을 아주 고요하게 표현하여 온화한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② 비 오는 가을밤의 외로움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뜻을 펴지 못한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는 한시로, 밑줄 친 부분에서의 가을밤에 괴로이 시를 읊조리는 모습은 세상을 등지고 고뇌하는 시인의 처지를 잘 드러낸다.

③ 금강산 마하연의 정적과 고요함을 읊은 기행시로, 밑줄 친 부분에서 날은 정오인데 깊은 산속이라서 한낮까지 이슬이 덜 마른 모습은 마하연의 정적과 고요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④ 밑줄 친 부분에서는 어로를 위한 어민들의 의욕과 풍요로운 바다의 축복을 느끼게 한다. 봄이 주는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와 어민들의 삶의 의욕이 물씬 풍긴다.

13. 소재의 기능과 적용 정답 ⑤

(나)는 화자는 너무나 사무리치는 그리움으로 인해 임이 가신 먼 곳 머언 나라를 바라보다 돌이 되었다. 따라서 (나)의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무친 그리움의 돌이며 슬픔과 한이 응결된 돌이다. 이와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돌'이 나타나 있는 것은 ⑤이다. 여기에서의 '돌'도 한의 응결체로, 절절한 사랑에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끝내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해 절규하는 안타까움이 '돌'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통해 깨달은 삶의 경건성을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때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죽음은 돌을 던지는 행위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숙명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② 견우와 직녀의 설화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더욱 더 절실하게 재회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노둣돌은 만남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황량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공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그 돌팔매가 고독한 반원을 그으며 떨어지듯이 허망한 행위로 그치고 있다. 즉 돌팔매는 허전하고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은 과거 행복했던 시절 즐거웠던 기억을 말한다.

14. 의미 이해 정답 ①

죽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의 불이 나는 곳은 화자의 가슴이다. 화자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은 임의 죽음으로 인한 허무의 불길 내지는 그리움의 불길이다. 따라서 ⓐ를 산 속에 붉게 핀 꽃들의 생명력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 ①은 바른 설명이 아니다.

[15~18] 지문 해제

20세기 한국 사회는 내부 노동 시장에 의존하였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외부 노동 시장에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는 지식 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나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국제 자본 이동과 국제 노동 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15.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③

이 글은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산업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내부 노동 시장에 의존하던 인력 관리 방식이 외부 노동 시장에서의 채용으로 변화하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라들 사이에도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③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16. 세부 정보의 일치 정답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지식 기반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지식 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②에서처럼 정보 통신의 기술(지식 기반 산업)이 사회 양극화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통해 볼 때, 20세기 한국 사회가 내부 노동 시장에 의존하였다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즉 현재 한국 사회는 외부 노동 시장에서의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경제가 점차 바뀌고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의 '국가가 포괄적 범위에서 강력하게 사회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면 계급 간 차이를 현재보다는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아주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의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각국 간 발전 격차가 지속 확대되면서 전 지구적 생산의 재배치는 이미 20세기 중엽부터 진행되어 왔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네 번째 문단을 통해 볼 때, 노동 집약적 산업의 저개발국 이동 현상의 심화는 국가의 정보 격차를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나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④

㉠은 기업이 필요한 우수 인력을 외부 노동 시장에서 적기에 채용하고, 저숙련 인력은 주변화하여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④의 '우수 인력의 비정규직화'는 ㉠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18. 도식화한 내용의 이해 정답 ③

㉡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핵심 인력은 능력 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고급 기술 → 높은 임금 → 양질의 능력 개발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갖지만, 비정규직 · 장기 실업자 등 주변 인력은 ㉡의 악순환을 겪는다고 하였으므로 선순환 구조에 반대되는 '저급 기술(질 낮은 교육 → 저숙련) → 낮은 임금 → 빈곤의 심화'라는 구조를 가짐을 추론할 수 있다.

[19~21] 지문 해제

서구 과학에서 물질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의식 범주 안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계량화될 수 있는 경우, 즉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의 근원적인 속성으로 보아 1차 성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의 성질을 물질의 부차적인 속성으로 보아 2차 성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과학의 발달로 1차 성질과 2차 성질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에 많은 과학자들이 서구식 계량화 조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운동과 물질의 경계가 붕괴되고 여기에 시간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세하여 물질의 전이와 변화를 인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19. 내용의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자연의 모든 물질이 계량화될 수 있다는 근대 서구인의 생각은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물질과 시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가세하여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④의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서구의 인식 변화를 밝히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20.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②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서구 과학에서의 물질에 대한 탐구는 그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하였다.

① 네 번째 문단의 '그러다가 일반상대성이론이 정립되면서 ~ 논의가 일반화되었다.'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서구인이 생각한 인식의 범주란 대상이 계량화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럴 경우에만 인식되었다고 규정한다.'라고 하였다.
④ 세 번째 문단의 '운동 에너지 자체가 물질이거나 ~ 알게 된 것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두 번째 문단의 '근대의 과학과 철학에서 ~ 부차적인 속성이라고 보았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21. 일반적 진술의 이해 정답 ④

근대 과학에서는 수학적 표현이 가능한 1차 성질만이 물질의 근원적인 속성이라고 보았는데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수학적 표현이 불가능했던 2차 성질의 수학적 표현이 가능해지자 1차 성질과 2차 성질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 ㉠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과학적 사실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변할 수 있다(④)는 진술을 할 수가 있다.

[22~27] 작품 해제

김유정, 『만무방』

이 소설의 제목인 '만무방'은 염치없이 막돼먹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작품은 살아가기 힘든 응칠, 응오 두 형제의 부랑(浪)하는 삶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하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그려 내었다.

제시된 장면은 농민 응칠이가 부채 때문에 세 식구가 도망하게 된 부분과 무위도식하는 응칠의 모습, 추수를 해도 수확이 돌아오기는커녕 빚도 다 갚은 처지의 응오의 모습으로 , 일제 강점하에서의 삶에 대한 절망이 잘 그려져 있다.

2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응칠의 오 년 전 생활, 즉 세 식구가 야반도주하기 전 응칠의 생활 모습을 볼 때 그의 가난은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궁리를 한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리고 농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빚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응칠의 가난이 그의 게으름이라든가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23. 제시된 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 ①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연재될 당시 일제 당국의 검열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유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시대적 현실과 관련 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인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은 작품 자체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한 경우이므로 절대주의적(구조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소설은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소설 밖의 서술자가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작품에 수시로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엿볼 수 있다.

25. 인물의 현실 인식 태도 정답 ③

[A]는 열심히 농사 지은 응오에게 추수가 끝난 후 돌아온 것은 수확물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농사일의 흔적인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것으로, 이는 당시 소작농의 궁핍한 삶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③이다.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을 임꺽정 설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생명력과 풍요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은 존재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커다란 힘을 낼 수 있는 민중들의 저력을 상징한다.
② 의를 좇아 천성을 지키어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④ 할머니와 나의 참깨를 터는 방법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순리를 따르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⑤ 어려운 생계에도 불구하고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안분지족(分知足)하려는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다.

26. 행동의 원인 파악 정답 ⑤

응오는 ㉠에서 말한 대로 진실한 농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를 털지 않는 이유는, 작년을 생각해 볼 때 벼를 털더라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다가(㉡) 더욱이 올해는 흉작이라서(㉢)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빚도 다 갚을 지경인 것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즉 응오는 벼를 베더라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수확은 없는, 아니 빚도 다 못 갚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벼를 베지 않고 있는 것이다.

27.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밑줄 친 ⓐ-ⓔ 중, 문맥에 맞게 풀이되지 않은 것은 ⓑ와 ⓒ이다. ⓑ의 '매팔자'는 '놀면서 살림 걱정이 없는 팔자'의 의미이고, ⓒ의 '근대러'는 '돈을 변통하거나 도움을 받으러'의 의미이다. 따라서 ⓑ와 ⓒ가 짝을 이룬 ②가 정답이다.

[28~31] 지문 해제

소리란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진동으로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두뇌가 주변 환경에서 이끌어 내는 경험으로 서로 다른 동물에게 주는 감흥이 다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두뇌가 다른 동물들의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소리의 유형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가 이러한 다양한 음들의 관계를 해독함에 따라 소리에 대한 감흥이 일어나고 개별적인 소리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즘은 타고나지만 그 밖의 다른 면들은 학습에 의해 다듬어지므로, 음악 감상의 방법으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글이다.

28. 세부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악기에서 빠져 나오는 공기의 진동이 음악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의 진동이 음악이라는 ③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네 번째 문단에서 '개별적인 소리들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신경계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⑤ 두 번째 문단의 '우리의 두뇌가 이러한 관계들을 해독함에 따라 ~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29. 세부 정보의 일치 확인 정답 ②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금붕어가 왈츠를 듣고도 왈츠에 따라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음을 듣지만 그 음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붕어가 기본적인 진동수는 감지해 낼 수 있다(a)는 것과 금붕어에게는 오케스트라의 음들이 그저 두서없는 소리로만 들릴 것이라는 것(c)을 짐작할 수 있다.

30.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 ①

이 글에서는 단순한 소리를 '음'으로, 이러한 음들이 합쳐진 관계들을 해독함에 따라 일어난 감흥을 '음악'으로 보았다. 이와 가장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①이다. 단순한 소리의 음운(음향)이 결합하여 의미 있는 소리를 이룬 것이 '음절'이고, '음향'은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1. 내용의 이해 정답 ⑤

㉢이 강조하는 것은 개별적인 소리들을 인식하는 것은 타고나지만 그 외의 다른 면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모두 학습에 의해 다듬어지고 마음의 훈련으로 음악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되므로,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음악에 대한 조예는 음악에 대한 마음의 훈련을 쌓을 때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32~35] 지문 해제

이 글은 문학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문학과 역사는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다루는 범주와 추구하는 목적, 인간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는 과거의 집단적 삶의 모습을 대상으로 다루는 반면 문학은 일어날 수

,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문학은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역사와 문학은 제각기 인간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과거의 집착물로서의 역사가 현실의 카오스를 체계화한 것이라면 문학은 카오스로서의 현실을 선별하고 배열함으로써 역사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문학적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3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은 문학과 역사가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다루는 범주나 추구하는 목적, 인간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 ②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33.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④

여섯 번째 문단에서 문학가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취급할 때 그 줄거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작가의 허구와 상상으로 그 역사적 대상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이 글을 올바로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세 번째 문단의 '역사가 과거 사실의 사실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문학은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을 무한한 자유 속에서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34. 단어의 정의 정답 ②

문학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개연성'(①)을, 여러 가지 현실적 구조를 벗어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를 발견해 낸다는 면에서 '의미 부여'(③)를, 그리고 문학이 다루는 범주가 개인의 문제(④)이며, 문학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⑤)이라는 면에서 나머지는 모두 문학을 정의할 때 활용될 수 있지만 ②의 '객관화'는 활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역사는 이 무수한 현실의 카오스를 객관화하고 그것들의 흐름을 선별하여 기록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객관화' 라는 말은 역사를 정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다.

35. 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 ⑤

다섯 번째 문단에서 현실은 동시적 질서 속에서 무수하게 생성되고 있는 카오스라고 하였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문학은 카오스로서의 현실을 선별하고 배열함으로써 뜻매김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현실과 문학적 현실의 차이점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A]에는 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6~39] 지문 해제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말하고 있는 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 기관을 본뜬 제자 원리에 있다. 한글의 닿소리는 조음 기관의 생김새를 본떠 글자를 만들었는데 소리의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하였다. 즉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다섯 글자에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 나는 곳은 같되 소리의 세기가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이렇듯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처럼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다.

36. 구체적 정보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은 그 제자 원리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 어디에서도 한글의 닿소리가 모양이 간단하고 나타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⑤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① 두 번째 문단에서 한글의 닿소리 글자들은 조음 기관을 본떴다고 하였다.

② 네 번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37. 접속어의 쓰임 정답 ⑤

㉠의 '그런데' 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엄청난 일임을 드러내기 위한 접속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 뜻을 가지면서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어인 '하물며'(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38.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 정답 ③

㉡의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 했다는 말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ㅁ, ㅅ, ㅇ)에다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 나는 곳은 같되 소리의 세기가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냈다는 뜻이므로 <보기>에서 ㉡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a와 d이다.

39. 예 적용 정답 ③

㉢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들을 형태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ㅁ, ㅂ, ㅍ'은 모두 양순음(입술소리)으로 세기에 따라 획을 차례로 더해 갔기 때문에 소리뿐 아니라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40~43] 작품 해제

심훈, <조선의 영웅>

이 글에서는 조선의 진정한 영웅은 시래기죽을 먹으면서도 농촌의 문맹을 깨우치는 것을 천직이나 의무로 여기는 이름 없는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소영웅들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꾸려가는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론가로서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성을 하고 있는 수필이다.

40. 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⑤

이 글에서 예찬하고 있는 대상은 시래기죽을 먹고 겨우내 '가갸거겨'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이나 의무로 여기는 이름 없는 농촌의 청년이다. 이들의 이러한 희생적 실천에 대해 작가는 조선의 영웅이라는 명칭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에서의 '연탄' 또한 자신이 한 덩이 재로 남거나 산산이 으깨져,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거나 눈 내린 날 아침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1. 작품의 성격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보기>에서는, 농촌 계몽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조선 청년을 주요 인물로 내세우지만 과격하지 않은 농민 운동을 제시하는 작품을 말했다. 그리고 ㉠이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할 때 ㉠ 작품의 성격이 어떠할지를 추측하는 문제이다. ①~⑤ 중 <보기>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42. 속담의 활용 정답 ③

㉡의 '순진한 계몽운동자'는 시래기죽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천직이나 의무로 여기는 실행가이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사대부들이 먼저 국가가 위급할 때 의병을 일으켜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된 삶의 가치는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살살 입술발림만 하고 턱 밑의 먼지만 톡톡 털고 있는 이론가로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의 '말은 앵무새'가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나 실천력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① 아무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눈을 뜨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글을 보고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④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
⑤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43. 내용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 말하는 '조선의 영웅'(㉢)은 실천하는 순진한 계몽 운동자인 ⓔ의 '농촌 청년'이다.

[44~46] 지문 해제

근래 청소년들이 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접적인 대면 시간이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직접적인 대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전화로는 자기의 공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비밀성이 있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자기를 위장 표현할 수 있는 가면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전화 매체의 특성을 현대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4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자녀의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놀라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 되고 있다는 일상의 예를(②) 들고 그 배경으로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대한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전화가 직접적인 대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③)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⑤) 전화의 특성을 나열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①). 하지만 제시된 기준에 따른 '분류'의 방법(④)은 사용되지 않았다.

45.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①

㉠은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같은 현상이나 일이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을 의미하는 ①의 ‘비일비재(一非再)와 의미가 유사하다.

②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

④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또는 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46. 예의 적용 정답 ①

㉡의 ‘비언어적 표현’ 이란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언어를 돕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표정 · 몸짓 · 손짓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①은 ‘들리는 말에 선뜻 마음이 끌리다.’ 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표정 · 몸짓 · 손짓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② 남을 비웃거나 비방할 때 사용하는 몸짓이다.

③ 몹시 쏘아보거나 노려보는 표정이다.

④ 감사를 표시하는 손짓이다.

⑤ 상대방을 때리려는 손짓에 해당한다.

[47~50] 지문 해제

> 동양화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읽는 것’ 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림을 읽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히고 있는 글이다.
>
> 그림을 읽는다는 말은 그림을 글자로 바꾸어 읽는다는 말로, 동양 삼국의 그림에 나타난 소재들을 보면 그림이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소재들도 서로 결부시켜 한 화면에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47.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는, “동양에서는 그림을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상 ‘그림을 읽는 것’ ” 이라고 하여 동양화를 감상할 때 그림에 담긴 의미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는 ‘그림이 읽힐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도 그려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이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다.

48. 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 ③

이러한 문제는 생략된 부분의 앞뒤 내용을 통해 추론 가능하다. 우선 ㉠이 포함된 문장은 ‘그림을 읽는다’ 라는 말을 정의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 바로 뒤의 문장은 ‘그림을 읽는다’ 는 말이 ㉠의 의미여야 하는 이유가 되며, ‘그림의 의취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 실제로 그림을 문자 또는 문장으로 바꾸어 읽는 그림이 많았었다.’ 는 문장은 ㉠을 포함하는 문장의 상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는 ③의 ‘그림을 글자로 바꾸어 본다’ 가 적절하다.

49. 설명 방법의 종류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의 ‘분류’ 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①이다. 운문이냐 산문이냐의 기준에 따라 문학 장르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②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인과’ 의 방법을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 의 예이다.

④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므로 ‘예시’ 가 쓰였다.

⑤ 시계의 구성 성분을 ‘분석’ 하였고, 시계의 공통점을 말했으므로 ‘비교’ 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50.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②

<보기>에서 ㉢에서 말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 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간적으로 함께 존재하기 힘든 것을 함께 그린다거나 하는 것이 될 것이다.

a 를 보면, 4월 초에 피는 꽃과 6월에 피는 꽃이 한 장면에서 같은 시기에 피는 꽃들처럼 그려져 있다는 것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 예가 된다.

c 도 보면 연꽃은 7~8월에 피는 수초인데 겨울 깃털을 한 수컷 원앙을 한 장면에 그려 넣었다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